

장유의 시작품들의 사상정서적특성

김 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 과학,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들에서는 민족고전에 대한 연구와 번역출판을 잘 하고 력사상식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력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선전을 널리 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력사유적과 유물을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며 민족의 넋을 곳곳이 이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고전문학유산가운데는 17세기 전반기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장유의 시문학유산도 있다.

장유(1587—1638, 자: 지국, 호: 계곡)는 우리 나라 중세력사에서 복잡다단한 시기에 문학과 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저술활동에 흔적을 남긴 인물이다.

장유의 길지 않은 생애는 7년간에 걸치는 임진조국전쟁과 정묘, 병자호란 등 크고 작은 전란의 시기를 거쳐 봉건통치배들의 극도의 무능과 당쟁으로 얼룩진 사회의 혼란속에서 흘렀다고 볼수 있다.

그의 진보적인 저술과 창작은 대체로 류배지농촌에서 진행되였다.

류배지에서 장유는 당시의 고루한 선비들과 달리 선진적학풍을 세우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특히 자기의 철학적견해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복잡한 정세를 떠나 한적한 농촌에서 지낸 류배살이는 그에게 있어서 유물론적견해를 확립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지닐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장유의 유물론적견해와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안목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진보적사상의 발전 특히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유물론철학이 줄기찬 발전의 길을 이어나가도록 추동하였다.

장유의 시문학유산은 그의 문집인 《계곡집》(16책 36권)에 실려있다.

장유는 당시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시창작활동을 벌렸는데 그에게서는 다른 시인들에게서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시세계가 펼쳐지고있다.

장유의 시작품들의 사상정서적특성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벼슬살이보다 량심을 지켜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가려는 생활적지향이다.

우리 나라 중세의 많은 철학자, 문인들도 인간생활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내놓고 이를 문학작품에 반영하기도 하였는데 장유도 그러한 철학자들중의 한 사람이다.

장유의 많은 시작품들에서는 고관대작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것보다 평백성들과 같이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참다운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고 노래한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장유의 시세계에서 무시할수 없는것이 깨끗한 생활에 대한 열렬한 갈망이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장유의 청렴한 생활적지향이 반영된 작품들은 매우 많으나 그중 대표적인것들로는 《전

원으로 돌아와》(제3, 6, 7, 10수), 《흥에 겨워》, 《감흥》(2수)과 같은 시들이다.

시 《전원으로 돌아와》(10개 수)는 장유가 벼슬살이에서 쫓겨나 농촌에 내려와서 느낀 이리저리한 감정을 노래한 시묵음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는 농사일을 중시하고 로동을 긍정하는 그의 태도와 함께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려는 지향이 반영된 작품들도 있다.

...

올해에 봄철부터 가물이 든다면
밭갈아 씨뿌리기 모두가 어려워리
아침에 일어나 동자따라 나섰다가
날 저물면 애오라지 홀로 돌아오네
먹은 힘 다하여 일을 하였노라
기쁜것이 있다면 량심을 지킨것뿐

우의 작품은 《전원으로 돌아와》 제3수이다.

시에서는 비록 벼슬에서 쫓겨나 농사일을 고되게 하지만 량심을 지키며 살아가는데서 기쁨을 느끼는 시인의 체험세계가 진실하게 안겨온다.

제6수에서도 비록 벼슬에서 파직되었지만 《힘껏 농사지어 근근히 부양하면서/ 세상과 인연 끊고 고명하게 살아가》려는 시인의 은일적리상과 결합된 생활관이 노래되었다.

제7수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해와 달같이
본래는 모두가 깨끗했다오
리기와 욕망은 사람을 어둡게 하여
어지러운 일에서도 다투게 하네
농부는 비록 고되게 일해도
천성은 오히려 어그러지지 않네
그대여 보시라 농사군들
여름철 밭에서도 병들지 않음을

라고 노래하면서 평범한 농부들은 비록 고되게 농사지어도 《천성은 오히려 어그러지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찬양하면서 《리기와 욕망은 사람을 어둡게 하》니 해와 달처럼 인간의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제10수에서도 《벼슬하며 도리를 실행하려다/ 뜻을 잃고 전원에 돌아왔다네/ 비로소 잘못 살아온 깨달았노라/ 인생말년 애오라지 스스로 전심하리/ 이랑과 고랑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뽕나무밑에서 즐기며 희롱하네/ 어찌 구태여 유족함을 구할손가/ 원하노라 죽과 범벅을 먹으며 살아감을》이라고 노래하면서 벼슬살이야말로 도리와 량심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생활이라고 하였다.

...

저렇게 부귀누림 좋기야 하지만
그 또한 위태로워 걱정이라네

고관대작은 나라를 저바리며
 천한 사람 제 구슬도 갖지 못하누나
 그러니 쓸쓸한 오막살이아래서
 스스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리

이것은 시 《감홍》의 첫수의 마감부분이다. 장유는 시에서 《나라를 저바리》는자들은 부귀를 누리며 잘사는 고관대작들이라고 규탄하면서 소박한 생활속에서 인생의 락을 누리려는 지향을 노래하고있다. 그는 《감홍》의 두번째 수에서도 하늘높이 날아오르나 눈속에서 굽주리고 떨면서 슬피우는 큰 기러기나 고니보다 해우에 앉아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닭이 오히려 낫다고 하면서 《그래서 옛날의 어진 사람/ 다북쑥 우거진 산속에 묻혀 살았으리》의 시구로 끝맺었으며 세번째 수에서도 돌을 다듬어 옥이 되었으나 그것은 벌써 돌의 성질을 잃어버린것처럼 사람도 명예를 탐내다가 몸을 망친다면서 《밝은 사람은 군중들속에 섞히려 사는것을 좋아하도다》로 끝나고있다.

작품에는 당시의 현실에 대한 환멸과 함께 깨끗하고 절제있으며 강직한것을 지향하였던 시인자신의 견해가 적지 않게 반영되어있다.

장유의 시작품들가운데는 강직함과 순결함,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시인의 미학적리상이 반영되어있는것도 있다.

그것은 그의 시 《련꽃》을 두고도 설명할수 있다.

사람들 무성한 초목을 사랑하지만
 나는 청신한 련꽃을 어여쁘다하노라
 깊은 못속에 외로이 피여올라
 살진 기둥처럼 우뚝 서있구나
 가느다란 줄기는 곧게 서있고
 위태로운 꽃송인 높아도 기울지 않네
 향기는 밖에서 날아온것 아니고
 아름다움 본래부터 타고난것이였네
 화려한 꽃 시들면 애석하건만
 푸른 잎새 여전히 곧게 서있나니
 군자의 덕보다 밝지 않은가
 미인의 정에나 비겨야 할지

이 시는 련꽃에 비유하여 시인의 특이한 미학적리상을 반영하려고 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비록 외로이 피어나 가엾게 보이지만 살진 기둥처럼 우뚝 곧게 서있는것은 시인자신의 강직함을, 꽃송이가 향기롭고 아름다운것은 순결하고 아름다운것을 숭상하던 시인의 지향을 의미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꽃은 시들어도 싱싱하게 곧게 서있는 푸른 잎새의 형상은 강직함과 아름다움, 순결함은 늙어 시들어도 변하지 않고 넘으로 역세계 남아있을것이라는 시인자신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장유의 시작품들의 사상정서적특성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철학을 비롯한 학문을 탐구하며 살아가려는 시인자신의 진지한 학구적열정이다.

장유는 물질적인 무극자, 태허를 세계의 시원으로 내세우고 리기호상관계문제를 유물론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인간의 정신현상을 물질적기로서 설명하였다.

그의 시작품들에서는 철학적인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모대기는 시인자신의 탐구과정과 열정이 노래되고있다. 이것은 장유의 시문학이 다른 시인들의 시문학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라고 볼수 있다.

장유는 시 《향불을 피우며》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청신한 밤 앉아서 향을 피우니
향불연기 솔솔 일어나누나
불이 꺼지면 연기는 없어지나
연기가 없어져도 향기는 죽지 않네
다만 보이지 않을뿐이나
허공중엔 여전히 남아있다고
왜 향기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원통을 얻어서 리치를 증명하리

시에서는 자그마한 사물현상 하나를 보면서도 그 현상의 원리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시인의 진지한 학구적태도를 그대로 노래하였다.

장유의 시에는 인간생활, 사회생활의 이러저러한 측면을 사물현상에 비유하여 지은 작품들이 많다.

그 대표작이 《료, 천, 일, 재를 운으로 하여》(4개 수)이다.

제3수에서 시인은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인가
외롭게 홀로 짝이 없구나
보자고 하면 볼수가 없고
찾으려고 해도 오히려 없어지네

...

라고 노래하면서 물질적시원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시에서 시인은 세계의 시원은 물질이며 그것은 눈에 띄우지 않고 일반사람들이 볼수 없는것으로 노래하였다. 이 시는 시인자신이 주장한 세계의 시원 즉 무극자에 대한 견해를 반영한것이다.

한편 제2수에서는 《색은 검붉고 누렇고/ 모양은 모나고 둥근것/ 형체도 없고 색도 없고/ 명분을 따지면 자연이라네/ 사물마다 각기 충족됨이 있고/ 그것을 구하면 그만일뿐일세》라고 노래하면서 물질적인 무극자의 형체에 대하여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견해를 시화하였다.

시인은 제1수에서 유교교리의 허황성과 해독성을 비판하면서 사물현상이나 사회현상도 모두 변증법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유교의 큰 도리는 모양이 없고
오묘하지만 텅 비였도다
어지러이 만물은 변화되고
무리지어 움직이며 다투어 뛰노네

...

시 《한적하게 살며 함부로 하는 말》 제1수에서도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인 견해가 노래되었다.

물질과 물질은 서로 잔인하구나
강자가 어찌 항상 강하랴
어떤 때는 그 보다 더한 적수 만나리

...

마음과 허공은 성곽이랴오
허공은 물질을 이길수 없고
물질은 이겨서도 얻을수 없다네

마지막결구에서 《어찌하여 세속에 물든 사람들/ 신선과 결별함을 믿지 못하는가》라고 노래하면서 세상이 자주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몽매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신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개탄하였다. 이것은 시인 장유가 무신론자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처럼 장유의 시작품들은 당시 시문단에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할뿐아니라 우리 나라 진보적시가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수 있다.